**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

**(Missional Church and Global Mission)**

김 종국 선교사

 **I. 들어가는 말**

 먼저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 중에 선교적 교회의 건강한 모델교회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주예수 교회에서 이런 귀한 선교적 교회 세미나에 초청을 받고, 함께 하게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치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지구촌 선교 시대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에 대한 역사 배경과 바른 이해**

 먼저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ch)에 대한 개념이 현재 다양하게 소개되고 또 이해되고 있다. 그동안 좀 혼동 스러웠던 부분은 Missional Church 와 missionary Church와의 사이에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었던것 같다. 이렇게 된데에는 이 단어가 가진 생소함이다. 먼저 영어에서 이 단어를 번역해야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이므로 이해조차 쉽지 않다. ‘Missional’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선교(Mission) 라는 명사의 형용사 형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선교적이라고 번역하는 영어의 단어는 ‘Missionary’ 라고 한다. 즉 그들이 있는 바로 그 곳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인식에서, 교회를 선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담기에는 이 단어가 한계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초문화 선교를 강조하던 선교적 교회 (Missionary Church)의 개념과는 구별이 되는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라는 단어를 만들고 새로운 개념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생긴 것은, 1970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인도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 35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때, 더 이상 영국이 선교국가가 아니라 피선교지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목격한 서구교회의 모습이 복음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깊게 세상과 타협하므로, 성경적인 진실을 현대 과학적인 사회에 하부구조로 흡수하도록 허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서구교회는 “혼합주의 의 발전된 전형 (An advanced case of syncretism)” 이며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혼용되도록 허용한 결과로 단정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적인 진실을 회복하여 타락한 서구문화에 선교적 도전을 주는 기능(선교적 교회)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20세기가 저물어가던 시기에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드려졌다. 일부 선교학자들이 미국 역시 유럽처럼 기독교 사회라기보다는 선교가 필요한 선교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개념을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를 중심에 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도 똑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역시 선교적 교회론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꼭 선교를 해야하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선교를 할 수 있는가’ 혹은 ‘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등 선교를 목회의 부가적인 사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바른 선교적 교회론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교회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레슬리 뉴비긴은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택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그 속성은 순례라는 이민자의 속성(Migrantness)을 가진것으로 보았다. 그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사도적 신앙을 보유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도적인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교회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재림이 완성되는 일이 존재 목적과 관련이 있고,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잃는다고 경고한다.

 성공회 자문위원회는 일찌기 1988년, 람베스 컨퍼런스에서 선교의 5가지 표지(Five Marks of Mission: 1.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2. To teach, baptize and nurture new believers; 3. To respond to human need by loving service; 4. To seek to transform unjust structures of society; 5. To strive to safeguard the integrity of creation and sustain and renew the earth) 로서 선교의 정의를 내린바 있다. 이 선언에 기초하여 선교적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5가지를 제시했다.

 (1) 선교적 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 선교적 교회의 중심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Worship to God)가 존재한다.

 (2)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적(Incarnational)이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합당하게 문화적으로 동화되어야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한다.

 (3) 선교적 교회는 변혁적(Transformational)이다. 선교적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혁하도록 섬겨야 한다.

 (4) 선교적 교회는 제자를 양육(Discipleship)하는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관성있는 성도의 부르심의 삶을 살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5) 선교적 교회는 관계적(Relational)이다. 선교적 교회는 친절과 환대가 특징이며, 성도간 상호관계를 존중하며, 발전 시키는 것은 물론 공동체로서 다른 기독공동체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

 **2) 전통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

 레슬리 뉴비긴에 의해 널리 알려진 ‘선교적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이다.(요한 3:16)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적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복음적’이라고 하면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이란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전인적이다. 단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이다. 창 1:26-28의 소위 문화적 사명 (Cultural Mandate)도 그 성격상 폭 넓은 의미에서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살리라는 것이기에 본질상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타락 후에 소위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19-20의 The Great Commission에 의해 대치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명령으로 받아드린다. 따라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명도 수행해야한다.

 한편, John Stott 가 위대한 계명이라고 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 13:34-:35의 Great Commandment의 선교적 교회에 대해 토론하는 시점에서 위의 두가지 명령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John Stott는 이 위대한 계명은 사회적 선행 (The social good works)의 근간이 되며, 위대한 명령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명령이라고 보았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한다. 교회는 세상에 단지 복음만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해야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 교회는 어떻게 정의 할 수 있는가 그야말로 제도적으로 굳어져버린 교회를 말한다. 성령의 다이나믹스 보다 모든 영역이 프로그램화되고 고착화되고, 권위적인 교회이다.

(그림 참조)



 (Traditional Church: 전통적 교회) (Missional Church: 선교적 교회)

 **- 전통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하지 않는 이유들(인도네시아 경우)**

필자가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토의한 내용이다.

 (1) 교회가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가지 프로그램및 행사로 바쁘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교적 소명으로 부르심을 깨달아야한다.

 (2) 교회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쁘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감당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한다.

 (3) 교회가 고착화되어 회의와 프로그램 계획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부분은 미약하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순수한 희생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많다.

 (4) 재정적으로는 부유하고, 그 재정을 잘 관리하는 데 치중한다. 교회의 안전한 지대(Safety-zone)를 강조하며, 선교 헌금의 요청이 오면 조금씩 도와준다.(일부 중국계 교회의 경우)

 (5)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아직 선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명 보다 생존에 허덕인다. 하지만 몇몇 교회가 모여서 기도 운동 뿐 아니라, 구체적인 선교를 할 수도 있다.

 (6) 교회가 너무 늙어 버렸다.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굳어버리고, 교회의 전통을 앞세우고, 변화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 한다.

 (7) 교회가 그 지역을 벗어나기를 두려워 한다. 지역 복음화 이상의 비젼을 갖지 않으려 한다.

 (8) 교회가 같은 종족과 민족에만 국한해서 목회를 한다. 내 민족 교회라는 의식으로 민족주의에 깊은 영향권 안에 있다.

 (9)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10) 교회가 선교적 사명으로 강단에서 외치는 선교사의 메세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할수 있을까?**

 David Horrox는 그의 글 “The Missional church?: A Model for Canadian Church?” 에서 “교회는 주변의 문화를 더이상 모방하지 말고, 바른 가치관, 신조, 행동양식을 가진 영적 공동체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질문하기를, ‘기독교의 메세지를 가지고 주변 세속공동체의 가치관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선교적’(missional)이란 의미도 여전히 많은 혼돈을 가지는데, 지금까지 해온 전통적 방식이 아닌,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잘못도 있다. 그러나 ‘선교적’이란 용어는 어떤 운동이나 경향보다 훨씬 더 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이 본질이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David Putman은 그의 책, ‘Breaking the Missional Code’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From programs to Processes. (프로그램에서 과정으로)

--- From demographics to discernment. ( 통계적 수치에서 분별적으로)

--- From models to missions. (형태보다 선교행위로)

--- From attractional to incarnational. (매력적인 것에서 성육적으로)

--- From uniformity to diversity. (단일함에서 다양성으로)

--- From professional to passionate. (전문적에서 열정적으로)

--- From seating to sending. (앉은 자리에서 보내는 자리로)

--- From decisions to disciples. (결단에서 제자도로)

--- From additional to exponential. (부가적에서 지속적 으로)

--- From monuments to movements. (일회성 기념이 아닌 운동으로)

--- From ordained to the ordinary. (목회자중심에서 평신도로)

--- From organizations to organisms. (조직체에서 유기체로)

 **4)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이해들**

(1)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기 위해 모인 선교적 성도( Missional Believer) 들의 거룩한 공동체 이다.

(2)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주안에서의 정체성(Identity) 과 직업적 소명을 추구하고 재발견하는 신앙공동체이다.

(3)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수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헌신적(Commitment) 으로 섬기는가의 성도의 성숙도(Maturity)가 중요하다.

(4)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는가 보다 사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자 양육: Disciplship 및 재생산: Reproduction)

(5)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과 더불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세상이 온전해 지도록 돕는가에 대한 소명을 확실하게 해야한다.

 (전도: Evangelism, 치유: Healing, 구제: Diakonia, Charity)

(6) 아직도 지상의 잃어버려진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를 극대화하여, 이 세상의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행위들: Missions)

 **III. 세계의 지구촌화/세계화 (Globalization)**

 21세기 세계의 가장 현저한 흐름은 ‘세계화’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나라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단절된 현상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양한 지역이 지구촌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세계는 문자 그대로 ‘지구촌 마을’(Global village)로 변했고, 역사상 최초로 민족국가의 틀을 초월한 헌법아래 하나의 연합국가를 형성한 유럽 연합(EU)도 세계화 현상의 한 모습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곧 지구촌 평준화는 아니다. 불균형 발전을 통한 빈익빈, 부익부 및 기득권 강화현상이 오히려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문명의 이기나 세계화의 특혜를 누리는 집단과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채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21세기 세계선교의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한편, 세계화와 더불어 정반대 흐름인 지역화가 병행되는 현상이 현저한데, 배타적 민족주의적 발흥이나, 종교적 근본주의의 부상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 기독교에 대해 친화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던 집단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배격하는 종말적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21세기의 선교의 남은 과업이 그리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세계화의 물결은 세계와 지역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과거 단일민족이 모여살던 한반도에 다양한 외국인이 유입되어 한민족과 더불어 사는 이른바 세계와 지역의 공존 공생 (global-local symbiosis) 현상이 좋은 예이다.

 이제 더 이상 선교를 ‘해외’라는 구별된 지역으로 제한 할수 없게 되었고,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의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이른바 ‘문밖의 세계선교’(world mission at your doorstep) 가 교회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교회는 더 이상 제한된 지역적 이슈에만 매어서는 안되고, 또 그렇수도 없게되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특정지역에 머물지라도 온 세상을 끌어안는 안목(think globaly, act locally) 이 요청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21세기의 특징은 냉전 종식과 그에 따른 정치, 경제, 외교, 질서의 재편, 새롭고 다양한 창의적 선교의 기회들이 열리고 지구촌 선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젠킨스(Philip Jenkins)는 최근 교계와 선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그의 저서를 통해 이제 서구주도형 교회시대는 지났고, 지구촌 교회 시대가 도래했음을 천명한다. 전통적 서구교회가 급격히 몰락하면서, 새로운 비서구교회가 급부상하는 이 시대적 흐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교회사가 앤드류 월즈(Andrew Walls)에 따르면, 그것은 서구가 기독교 후기사회로 전락하는 일(Post-Christian West)을 허용하시면서 기독교가 서구종교라는 오해를 벗고 진정한 세계종교로서의 위상 (Post-Western Christianity)을 회복케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한다.

 **V. 21세기 지구촌 선교 이해의 급격한 변화 (New Paradigm Shift)**

 우리가 오늘날 지구촌 선교의 흐름을 파악하기위해서는 먼저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의 선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데이빗 보쉬는 그의 저서 “변화하는 선교”에서 “인공호흡은 생명의 회복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세계선교는 현재의 고착상태에서 빠져나와 급격한 세계의 변화속에서 합당한 선교사역을 감당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젼을 필요로하고 있다”하고 강조했다. 오늘날 선교의 위기는 선교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의 획일화된 고정관념의 틀에 메여서 선교를 보고, 이해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변화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관점과 해석의 변화가 있어야한다. 이 관점과 해석은 시대정신에서만 보아서도 안되며, 성경과 선교역사를 통하여 바라보는 통전적인 해석의 기초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선교신학의 패러다임의 변천의 역사를 파악하는 터 위에서, 새로운 시대의 전략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적 변화**

(1) Know how – know where – know why –know who.

(2) Industrial society – information society

(3) Forced technology – high tech / high touch

(4) National economy – world economy

(5) Short term – long term

(6) Centralization – decentralization

(7) Institutional help – self help

(8) Hierarchies – net-working

(9) Either/or – multiple option

 **2) 교회의 이해의변화**

(1) 지역교회 – 세계교회

(2) 교회성장지향 – 건강한 교회로의 지향

(3) 전통적인 교단 지향 – 하나님 나라 지향 ‘Kingdom of God’

(4) 목회자와 평신도의 교회 역할의 분담 - 사역의 동역자 개념으로

(5) 남성 리더십 – 남성,여성 협력 리더십

(6) 세속주의의 도전 – 종교다원주의의 도전

 **3) 공간적 의식의 변화**

 지난 몇 십년 동안의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세계선교의 공간적 의식의 변화를 초래했다. 전자 기기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선교지는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물론 아직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없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한 화상회의 등으로 지구가 하나의 촌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통신 뿐만 아니라 교통 수단도 지난 3년전에 비하면 월등히 좋아졌다. 이제 선교지는 누구나 가볼 수 있는 지역이 되었고 미주 디아스포라교회도 한 해에 수차례 선교지 방문이 이뤄지고 있다. 즉 의식의 변화, 선교지가 더이상 먼 곳이 아니라는 인식과 공간적 거리감이 사라지고 있다.

 **4) 경제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

 서구경제에 비해서 2/3세계라고 불리우는 비서구 세계 경제적인 급격한 성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10년전 만해도 가난한 나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화교들을 중심으로 상권을 이뤄가고 있다. 홍콩 반환과 함께 중국은 전통적인 이념의 장벽을 벗어나 세계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전세계에는 4천5백만이 넘는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있으며 중국 본토에는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세계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해가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제력이 자민족의 소수종족을 위해 16,000 명의 기독교 선교사를 파송하는 재원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힌두교 포교사들의 포교활동에도 사용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도 서서히 경제적인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만에도 인플레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있었던 나라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회복과 안정을 얻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적 안정이 선교의 바람직한 환경을 창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남미 교회들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세계 선교의 한 축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선교의 Target Group의 변화**

 30년 전 만해도 선교지를 정할 때 나라를 결정하고 종교권을 생각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강조된 미전도종족 개념이 소개되고부터 이제는 종족을 향한 헌신과 연구가 더 깊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 나라에도 수백종족이 살고 있기에 더욱 더 선교사들의 타겟그룹이 세분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접근지역의 선교,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같은 특수한 타겟그룹을 향한 선교가 고려되고 있다. 필자의 교단에서도 국내 외국인노동자 사역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6) 선교사에 대한 개념의 변화**

 선교사는 한번 선교지에 파송되면 그 곳에서 묻혀야 바람직한 선교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 오지, 밀림, 극빈층 등 원색적인 선교사 상을 그리던 데서 21세기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선교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MAF 항공선교사, 컴퓨터선교사, 스포츠선교사, 의료선교사, 전문인선교사, 비거주선교사, 단기선교사, 본부선교사 등 점차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와 BAM 선교는 최근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7) 종교다원 주의의 영향으로 선교 신학의 변화**

 서구의 ‘모든 종교는 동등하여 동등한 하나님, 동등한 구원에 도달한다’는 다원주의 신학이 현대신학과 선교신학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즉 개인의 구원보다는 인간화의 강조로 인해 전체와 평화 존중이 우선되는 자유주의 선교신학이 선교형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8) 민족국가(Nation-States)에서 소수민족주의 (Ethno-nationalism) 로 변화**

 오늘날 국제정치는 민족국가에서 소수민족주의, 인종민족주의로 변하고 있다. 소수민족주의는 21세기 국제화시대에 오히려 원시문화에로의 복귀를 의미하는데 이는 문화인류학자들에게는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선교적 차원에서는 고대 샤마니즘 전통문화를 고수하려는 의지 때문에 복음전도에 더 큰 장애과 도전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시공동체는 강한 배타주의로 인종간의 갈등으로 종족간 전쟁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몇 년전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서 마두라종족과 다약종족 간의 유혈사태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VI. 21세기의 지구촌 선교동향.**

 **1) 선교학적 관점에서**

 21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변화를 겪은 분야는 선교학 분야인것 같다. 어느때 보다도 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 지난 50년을 살펴보면, 우선 선교학이 처음 유럽에서 태동하고 발전하였다가 미국으로 그 중심지가 이동하였다. 지난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선교학의 추이를 본다면, 북미지역에서는 선교 전략과 같은 실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유럽지역에서는 보다 더 이론적인 축면이 강조되었던 것 같다. 지난 40년간은 북미지역의 선교학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강조부분은 대체로 사회과학, 특히 문화 인류학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론 같은 부분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향에 동조하지 않은 소리가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우리 한국에서도 자신학화, 자선교학화에 대한 고민들, 다양한 공동체들이 선교학에서의 연구를 유동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몇가지 두드러진 동향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본다.

 (1) 세계화의 시각

 복음주의 교회와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모두 2/3세계의 교회의 역할을 인식하면서부터 선교에 대한 전략들을 ‘세계화’의 시각으로 이해하며 실천하게 되었다. 2003년 5월에 미국에서 가졌던 국제선교전략회의의 3가지 중요 이슈로

 첫 째, 온세계의 이슈(Whole World Issue) 8가지였다. 즉, 세계화, 예수의 유일성, 핍박받는 교회, 총체적 선교 방법, 소외와 억압받는 사람들, 난민문제, 위기에 처한 어린이 문제, 미전도 종족, 동성애문제, 홀부모 가정과 소년소녀가장문제, 도시슬럼가의 선교적 도전이다.

 둘째, 온교회의 이슈(The Whole Church Issues) 7가지로, 선교협력과 파트너십, 교회선교/전도 활성화, 사회적 책임을 지는 교회로의 갱신문제, 미래 지도자 개발의 이슈, 선교를 위한 기도 동원문제, 상황화문제, 제 3세계 교회성장의 요인과 저해 요인 등이다.

 셋째, 온전한 복음의 이슈(The Whole Gospel Issues) 7가지였는데 영성의 문제, 전도와 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 예술의 개발, 어린이 선교의 중요성, 커뮤니케이션과 삶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문제, 테러문제, 핍박의 이슈, 민족적 정체성의 이슈 등이었다.

 그리고 2003년 6월 캐나다 밴쿠버 국제회의 주제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교훈은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각 종교권을 재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세계화의 따른 선교(Globalization and Mission) 적인 이슈들을 실천적 믿음으로 대비해야함이 강조 되었다.

 (2) 선교의 전통적인 견해와 혁신적인 다양한 견해들의 수렴

 상당시간 선교에 대한 혼선이 있었지만 70년대 이후 복음주의자들이 로잔(Lausanne Congress) 에서 2가지 선교에 대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첫째는 선교의 개념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함시키는 이해와 둘째는 사회적 책임을 단순히 복음전도의 수단이나 결과로 복음전도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죤 스토트와 같은 지도자는 이 양면성의 조화를 강조하여, 복음주의 선교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3) 다양한 학문의 분야들과 조화

 교회역사가들이 선교와 다른 분야의 통합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상담이나 교회성장같은 분야에서 그런 시도가 있어 왔으며, 더욱 최근에는 사회과학과 선교학을 통합하려는 자유주의 학자들에 대항해서 신학이나 성경을 선교학과보다 큰 차원에서 통합시켜야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러한 통합에 위험도 따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선교의 주체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조심스런 조화가 요구된다.

 (4) 타종교의 접근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관심의 고조.

 에큐메니칼 진영은 오래전부터 타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일찌기 1928년의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선교대회(IMC) 부터 시작해서 1971년까지 ‘타종교와의 대화’는 선교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접근했지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최근 10년전부터 타종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대화에 대한 많은 방법론들도 제시되고 있다.

 (5) 지구촌 선교자원의 재배치 문제

 80년 이후 미전도종족 중심으로 선교철학이 변화하면서 선교자원의 재배치 문제가 등장되었다. 사실 서구에서는 지난 십수년간 이 재배치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 왔다. 한국교회에서도 2000년부터 KWMA 에서 한국 선교사에 대한 광범위한 리서치를 실시하게 되고, 2003년 말에는 선교사의 전략적 재배치 조정 합의문까지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미남침례교 선교부에서는 선교사의 재배치는 한 지역의 노련한 베테랑 선교사를 다른 개척 선교지역에 지역전투지휘관으로 전환 배치시키기도 했다. 이런 재배치 대상의 선교사를 전략조정가로 임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한 전도운동의 사역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 전략적 관점에서**

 (1) 추수지역선교에서 전방개척 선교로 이동

 70년 초 멕가브란박사에 의해 주장되었던 복음에 잘 준비되어 있는 추수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론이 최근 10년 동안, 랄프 윈터 박사 등에 의해 ‘제한지역 혹은 미전도지역’ 또는 루이스 부쉬가 주장하는 10/40 창 내에 있는 복음의 촛점을 맞추어지는 전략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복음이 이미 들어간 지역에 90%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고,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겨우 10% 정도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는 보고가 20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촛점을 갖게 했다. 사실 한국선교사들은 최근 통계에 의하면 45%가 미전도지역 사역 선교사로 알려져 있다.

 (2) 서구선교사의 주도로 부터 비서구선교사와의 협력시대로 이동

 21세기에 들어 2/3세계 선교운동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재정, 정보, 이론, 전략면에서 서구에 의존하는 상태이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지도력도 국제화를 말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세계선교를 주도해 오던 서구선교사들이 이제는 2/3세계 선교사와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전략적인 면이나, 선교현장의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해야할 때이다. 자칫 잘못하면 서구교회는 선교과업을 2/3세계에 맡기고, 자기들 본국사역만 집중할 수 도 있고 또는 서구는 전략과 구조만 제공하면서 계속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2/3세계 선교사들이 그들과 함께 사역할 준비가 되었는가하는 질문도 겸손히 대답해야 한다. 최선의 길은 각자가 참된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서, 상호 의존적 (Interdependance)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섬겨야 할 것이다.

 (3) 전통적인 형태의 선교사역과 더불어 보다 창의적인 사역형태로의 변화

 아직도 한국교회 선교는 최근 한국선교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전통적인 형태의 선교사역인 교회개척(48.9%), 제자훈련(20.3%), 교육사업(9.7%) 신학교육(7.8%) 등이 85% 가까이 이른다. 그러나 세계적인 선교전략의 추세는 창의적 사역형태를 선교현지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거주 선교사나 특별한 형태의 사역의 선교사 (병원사역, 컴퓨터 사역, 스포츠 사역) 들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비서구 세계가 지구촌 선교의 홈베이스로의 역할을 이양받고 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본부들이 아시아 선교현장으로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찌기 OMF 는 싱가폴에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세계선교포럼이나 전략회의가 방콕이나, 치앙마이 등 아시아국가로 옮겨지고 있다. 특히 태국 치앙마이는 아시아선교의 홈베이스 역할을 한고 있다. 또한 선교단체들이 아시아 지부들을 만들어 2/3세계의 여러 선교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한국의 WEC, SIM, OMF, OM 등 국제선교단체 대표들과 전략회의를 수시로 가지며 왕래하고 있다.

 (5) 목표에 대한 연속성이 부족한 전략에서 연속성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이동.

 지난 20세기 말, 필리핀에서 열렸던 로잔 II 대회를 계기로 일어났던, AD 2000 and Beyond 라는 선교운동 같은 것은 2000년 까지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여 많은 선교전략을 만들어 내어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여호수아 2000 프로젝트, 10/40 Window 개념, Gate Way 프로젝트 4/14window등) 큰 영향을 끼쳐 왔지만, 더 구체화된 전략으로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 즉 전략들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더 효과적인 선교사역의 열매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향되어야할 것이다.

 (6) 선교지에서 장기사역으로부터 단기사역으로의 경향

 특히, 서구선교사들의 선교형태는 장기사역보다는 단기사역(한텀, 3-4년) 의 헌신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일찍 떠나므로 선교현지교회의 지도력을 높혀서 복음화를 가속화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기선교사역을 선택하는 것이 헌신의 결여에서 기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선교지는 생애에 걸친 헌신된 사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VII. 오늘날 지구촌 선교에서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총체적 선교.**

 **1) 총체적선교(Holistic mission)**

 복음 전파와 사회구원을 동시에 지향하는 총체적 선교는증거(witness)는 전도(evangelism) 를 포함하지만, 전도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오랫동안 복음주의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전도의 책임”으로 제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하는 가치가 우리 삶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신뢰도는 우리가 구현하는 삶을 통해서도 뒷받침되며, 단순한 말이 아닌 말과 행실을 통해 복음을 중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쟌언약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현존이 복음 선포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로전 언약을 기안한 죤 스토트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위해 선포와 현시의 두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들려줘야할 뿐 아니라 보여줘야한다는 점에서 복음의 가시성을 중요시 강조한다. 선포가 증거가 원심적 측면이라면, 삶을 통한 현시는 증거의 구심적 측면이다. 즉 언어와 비언어를 망라한 총체적 메세지로 복음을 증거해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메세지는 우리가 말을 할때 뿐 아니라 말하지 않을때도 삶과 태도를 통해 전달되는 법이다.

 **2) 교회와 선교**

 장기간 선교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서구 선교의 틀은 지구촌 선교 시대에 올바른 성경적 선교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오랫동안 선교는 교회 밖의 선교단체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지역교회의 선교적 각성과 선교적 부흥을 강조하게 되었다.

 죤 스토트은 그의 저서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를 통해, 역사적으로 분리되고 있는 교회의 세구조, 즉 회중구조-지역교회, 훈련구조-신학교, 훈련기관, 선교구조-선교단체가 통합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통합적 교회관은 필연적으로 선교적 교회론을 낳는다. 선교란 교회가 시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Christianity Today 가 선교 분야에 탁월한 책으로 선정한 <하나님의 선교>의 저자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고 말한다. 선교적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 체질및 선교적 DNA를 가진 교회이고, 모든 성도는 선교적 삶 (Missional Life) 을 살아야 한다.

 **3) 한국 교회의 선교의 과제와 책임**

 21세기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통적인 서구교회뿐 아니라 비서구 교회를 크게 일으켜 사용하신다. 특별히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확신한다. 이 시대에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가 감당해야할 과제와 책임은 무엇일까 몇 가지 이슈를 나열해본다.

 (1) 축적된 세계 선교의 경험과 노하우 학습

 지난 30년동안 한국교회는 미주 디아스포라교회들과 파송받은 한국선교사들과 더불어 (KWMA, KWMC ,KWMF)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선교를 해오면서 그런대로 노하우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피하고 효율 극대화를 통해 선교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다.

 (2) 창의적 한국선교 모델 제시

 지구촌 선교시대의 도래는 세계선교에 대한 한국선교의 모델을 요구한다. 이제 서구선교의 방식을 비판없이 수용하거나 모방해서는 안된다.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면서, 피선교지에 맞는 창의적인 모델을 선교 현장에서 모델로 제시 되어야한다. 그래서 최근 ‘한국형 선교’, ‘자신학화’, ’자선교학화’라는 이슈로 주님께서 한국 선교사에게 주신 독특한 선교 모델들을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비서구교회지도자들은 최근 들어 한국 선교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

 (3) 선교운동의 국제화

 선교란 본질적으로 세계적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무관하게 선교를 그 관점에서 조명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한다. 오히려 선교가 건강한 세계화를 선도해야한다. 왜냐하면 선교란 우주적인 복음을 구현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인식이 결여되고 국제화 과정이 생략이 된 선교행위는 오히려 선교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본질상 선교와 공존할수 없는데, 그간의 한국교회는 다분히 폐쇄적이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교회의 협력과 동역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남은 과업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VIII. 한인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한 제안.**

 **1) 한인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의 정체성(Identity) 확립과 보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미래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달려있다. 그들의 모든 분야에서의 탁월함은 이미 모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한국혈통을 가진 세계적 크리스챤’(The World-Class Christian with Korean Heritage)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경쟁의 시대에 생존의 문제를 풀기 위해, 또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해, 그것도 아니면 선진국의 삶으로 동화되기위해 나선 해외 이주자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복음 전수자의 사명에서 생각할 때, 북미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신앙적 선교적 차원에서의 정체성 확립이야 말로 그 어느것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 선교 자원의 개발과 지속적인 동력화**

 한인디아스포라 교회가 가진 영적인 열심과 능력은 대단하다. 문제는 자라나는 2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 (Potential Energy)을 어떻게 일찍부터 비젼을 심어 주고 , 지속적인 동력화(Mobilizing)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물론 단기 선교나, 선교 집회를 통해 헌신하기도 하지만, 더 일찍이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들이 좀 더 사명을 가지고, 인력 은행(인재 풀 시스템)을 연구하여, 선교자원들의 지속적인 동력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지도력의 상호 협력구조**

 위의 정체성 문제나 선교자원등의 공유 및 더 나은 선교 전략들을 위해 한인디아스포라 교회의 리더십들의 네트위킹과 상호협력구조는 매우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지구촌 현장 속에서, 함께 보내임을 받은 디아스포라 교회와 함께 고민하는 장은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것이다. 금번 리치몬드 주예수 교회에서 이런 건강한 교회 세미나를 통해 ‘선교적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위한 선교지도력의 상호 협력 구조들을 한층 더 엎그레이드 시킬 때,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교회가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확신한다.

 **4) 선교지 교회와 피선교지교회가 함께하는 세계교회(Global Church)에의한**

 **지구촌 선교( Global Mission)**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내에 잠재해 있는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 시대는 협력과 동역이 필요하다. 하물며 세계교회가 공동으로 위탁받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협력과 동역은 선교운동의 힘을 강화해주는 물리적 (양적)시너지 뿐 아니라, 선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화학적(질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그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세계교회와 협력과 동역에 있어 다소 소극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세계교회와 손잡고, 시너지 효과를 낼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세계교회(Global Church)에 의한 지구촌선교( Global Mission)야 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1세기의 선교의 원리이자 모델이라 생각된다

 **IX. 나가는 말**

 이제 세계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이 선교지(Mission at the doorstep)이라는 인식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현상은 기존의 기독교 선교에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성장 추구에서 성숙의 추구로 전환하며,외적의 아름다움과 프로그램보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나누는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제는 교권증심의 제도권의 선교의 틀을 벗어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의 사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World Christian의 의식을 갖고, Missio**na**ry Church에서 시작해서 Missional Church를 세워나가야 할것이다.

 더불어 한인디아스포라교회는 교회의 본질로서의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회내에 선교활동을 증대시키는 것 뿐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적 소명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고 목회자들의 올바른 선교 신학적 통찰력을 가진 목회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인디아스포라의 사역방향이 점점 자국민 중심에서 차세대 및 다문화, 다국적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단일민족 목회에서 다민족 교회 사역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에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는 자국민목회와 더불어 현지교회들과 연합하여 타민족 선교를 위한 전진 기지로 전환해서, 한국민족의 신앙적 유산인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 새벽기도, 금식, 순교신앙, 헌신, 교회개척의 열정을 후세들에게 물려주어, 주위의 타민족에게 영육간의 Blessing으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면에서 리치몬드 주예수교회는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들의 귀감이 될 뿐아니라, 이민교회의 좋은 Role Model로 섬기고 있음을 감사드린다.

참고 문헌

Bosch,David. “ Tran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N.Y.: Orbis,1991.

Collier,P. “Exodus: How Migrant Is Changing Our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Ed Stetzer & David Putman, “ Breaking the Missional Code”,; Broadman &

 Holman,2006.

Guder, Darrell L. ”Missional Church :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Newbigin, Lessile, “Trinitarian Faith and Today’s Mission.” 1964.

 “The other side of 1984; Questions for the Church.”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s, 1983.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Grand Rapids: Baker 1991.

Van Gelder,Craig, “The Minisyrt of the Missional Church; A Community led

 by The Spirit.” Grand Rapids: Baker 2007.

김성훈,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신학적 논의”, 전방개척선교 저널 (KJFM),

 Vol.27,2010, 3,4 호.

문상철, “ 기독교 선교를 위한 글로발 문화 해석.” 서울: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2009

조동진, “선교학 강론”,서울: 동서선교연구개발원, 2012.

최형근.”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신학과 선교.31집(2005),